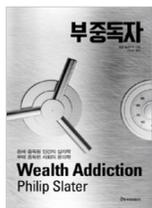


# 세상에 부자는 없다 '부 중독자' 만 존재할 뿐

## 부 중독자

필립 슬레이터 지음



석유 재벌 록펠러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제안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하나의 석유통을 남뿔으로 밀봉할 때 남 40방울 대신 39방울씩만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또 재고조사 보고서에 실려있던 750개 중 700개는 현장 책임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 마개의 값은 1달러도 되지 않았다.

흔히, 가난한 사람은 할인 행사를 좋아하고 부자는 공짜를 좋아한다고 한다. 왜 돈이 많은 사람이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전전긍긍할까.

하버드대학교 브랜다이스대 교수를 거쳐 비영리 성장센터 그린하우스를 설립한 필립 슬레이터는 이런 현상을 한 마디로

돈 많을수록 신뢰 줄어...자신도 자식도 못 믿어 결코 만족이 안 돼 알코올·마약 중독보다 심각

'부 중독'(Wealth Addiction)이 라고 규정한다. 그는 동명의 신간을 통해 돈 버는 중독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서운 것인지 설명한다.

저자는 단호하다. 그는 "이 세상에 부자는 없다. 부 중독자만 존재할 뿐이다"고 규정한다. 부 중독은 중독자가 다른 금단 현상을 보면서 한층 더 허탈을 느끼는 유일한 중독이다.

다른 중독에 비해 부 중독은 더욱 심각하다. 많은 사람이 부 중독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일종의 중독

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난한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 중에는 남편이 하룻밤 사이에 부 중독자로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든다. 신뢰가 줄어들수록 돈은 더욱 많아지고, 이런 일은 무한히 반복된다. 그들은 자식조차 신뢰하지 못한다. 만약 자식들이 부모를 빼앗아 오로지 돈만 믿는다면 부모들이 어서 죽기만을 조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내면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는 탐욕과 몰두뿐이다. 이 때문에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만족을 모르게 된다.

부자는 없고, 부 중독자만 있게 되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

지난 1980년 레이건 집권 이후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등을 펼치며 부 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해부한 이 책은 '돈이란 무엇일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돈의 정체성으로 세 가지를 든다. 돈은 상징물이지 실물이 아니다, 돈의 기능은 동질화이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부자와 부 중독자를 구별해 8명의 역만장자를 엄선해 부 중독의 사례를 설명한다. 또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관리 하에 놓이길 바라는 부 중독자들을 '에코 마피아'라고 부른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우리 안의 부 중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는 없고 부 중독자만 길러낸다. 돈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진은 돈에 중독된 재벌가의 파멸을 그린 영화 '돈의 맛' 중 한 장면.

독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부 중독에서 치유된 경험을 스스로 밝힌 그는 끝없이 내면의 공허와 결핍을 외부의 돈으로 채우고자 하는 '에코 마피아'와의 관계를

끊고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한다.

(여마마마·1만40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미생'에 이은 또하나의 웹툰 명작 부당하고 맞서 튀어나온 노동자들

### 송곳 1~3

최규석 지음



들의 투쟁에서 따왔다. 최정규작을 하고 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받고 "불법"이라며 맞서

'분명 하나쯤은 좋고 나온다. 제 스스로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해서 기어이 한걸음 내딛고 마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이다.'

'미생'에 이어 이번엔 '송곳'이다. '공룡 돌리기에 대한 슬픈 오마주', '대한민국 원주민' 등으로 알려진 만화가 최규석의 신작 '송곳'(1~3권)이 나왔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네이버에 연재된 웹툰으로 외국계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부당하고에 맞서 투쟁하는 이야기다.

'이런 소재로 이런 재미를 뽑아낼 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었다'는 만화가 주호민(신과 함께) 저자의 평처럼 뒷 이야기가 궁금해서 한번 잡으면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매력에 있는 만화다.

이 작품은 실제 인물과 실화를 바탕으로 작가의 깊이있는 현장 취재와 인터뷰가 어우러져 완성됐다. 작품의 줄거리는 지난 2002년 대형마트 까르푸에서 벌어진 해고 노동자

는 주인공 이수인 과장은 김경옥 카르푸-이랜드 일반노조 위원장이 모델이다. 강직하지만 때론 능글맞게 변질거리는 노동운동가 구고신의 모델 중 한명은 하종강 교수다.

이수인을 시가하는 부장 정민철, 직원들에게 신뢰받는 주장민 주임, 소심한 허경식 과장, 그를 믿고 따르다 배신당한 황준철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화 제작이 결정됐으며 드라마 방영도 추진중이다. 저자는 구고신 역으로 '차기웅과 녀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캐릭터'인 한석규를 꼽았다. 6월부터 4부가 연재될 예정이다.

〈창비·각권 1만1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당신의 흔적에 기회가 있다=빅데이터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의 흐름과 전망, 문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실용적인 비즈니스 활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위한 제안서. 저자는 책을 통해 어느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거대한 양의 새로운 유형을 지닌 다면적인 정보의 원천인 빅데이터에 대해 아주 상세히 분석, 해부한다. 또한 당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빅데이터의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경제신문·1만8000원〉

▲고려사의 재발견=한반도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500년 고려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책. 그간 특정 시대와 영역에 편중되어 있던 한국사 이해의 편식증을 극복하고, 한국사 이해의 영역을 고려로 확장함으로써 고려사에 대한 일반인의 관

## 어린이 책

▲이제 집으로 가자=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소재로 한 그림책. 마법사 로코와 강아지 보보는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낸 사이다. 행복했던 기억이 많지만 보보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로코는 슬픔에 빠진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법의 힘마저 잃고 만다. 로코는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어 지혜로운 아들을 찾아가 묻기로 한다.



심을 환기시킨다. 오랫동안 고려 역사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료에 기초한 고려의 주요 역사를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들려준다. 〈휴머니스트·2만3000원〉

▲예외=경계와 일탈에 관한 아홉 개의 사유. 강상중, 김기창, 김향, 김호, 박상훈, 이충형, 임태연, 최정규, 홍성수 등 전문가들이 정치, 철학, 법학,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예외상태를 사유해본다. 일정한 법칙과 합의된 사안에 의해 작동하는 메커니즘 내부에도 예외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어떤 예외는 배제되고 어떤 예외는 수용된다. 독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간 사유를 새롭게 구성해 지금 이 시



〈노랑상상·1만2000원〉

▲키가 120킬로그램? =

투덜대기 좋아하는 투덜 마녀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까마귀 오딘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단위에 대해 재미있게 배운다. 세상에는



대를 다채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과지성사·1만5000원〉

▲고려왕조실록에서 배우는 리더의 자격=우리 역사상 가장 진취적인 시대이자 가장 굴욕적인 시대, 고려 474년을 다스린 왕의 목소리에서 배우는 참역사, 후삼국 통일, 무신정권, 몽골의 침입, 위화도 회군 등 거대한 사건 속에서 읽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한 그들은 백성을 위해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리더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등 통사적 역사를 재미있게 읽으며 모든 의미의 밑거름이 된다. 〈북오션·1만5000원〉

▲당신의 시간을 위한 철학=이 시대의 몽테뉴, 로버트 그루딘의 자유에 관한 단

상. 이 책은 '시간'을 이야기한다. 시간 속을 흘러가는 자신만의 여정, 과거의 기억, 미래에 대한 희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현재의 경험에 미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자유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절망케 하는 시계로부터의 자유,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틀에 박힌 일상 속에서 더욱 심각해 보이는 낭비 따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경당·1만5000원〉

▲시크릿 파일 위기의 장군들=막대한 책임을 진 장군들이 권력과 집권을 위해 벌여온 전쟁과 군사적 무능함을 고발한다. 대표적으로 연평도 포격을 당하면서도 교전규칙을 몰라서 UN군 사령관에 묻거나, 이전 행정부와 군인들을 배척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센터를 해체했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초래한 일 등이 있다. 저자는 장군들을 향해 국민의 주권에 바탕을 둔 정치 권력에 복종은 하되, 조연과 소신을 아끼지 말라고 호소한다. 〈메디치·1만6500원〉

제, 외국인 등 다양한 주제를 만화, 지도, 그림과 절묘하게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지식정보그림책이다. 〈사계절·1만2800원〉

▲기회가 없는 아이=아이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돕는 캐나다 대표 아동문학가 미셸 멀러의 작품.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친구가 되고 존중하고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성장동화다. 사춘기 학생이 어떻게 갈등하고 사고하고 성장하는지 1인칭 시점으로 생생히 엿볼 수 있다. 〈풀빛미디어·1만원〉

###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9억(보 4.2억 월 1,340만)
- 수원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혹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품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 치평동 상가 4층 임대 310㎡ 보5천만/월300만 (학원, 사무실 적합)
- 벽진동 마스터빌룸부근 창고 230㎡ 임대 보3천만/월170만(조정가)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정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서구 벽진동 대지 230㎡ 매 5억
- 서구 마북동 대지 701㎡ 매 10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답 2,600㎡ 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 퇴직하신 하신 분과 귀천인을 위한 전원주택

매매 2억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공음면소재지) 대지 200평/건평 35평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NAVER 검색에 고향에 집짓기 키워드로

### 노무현 전 대통령님 봉하마을 사저와 부엉이 바위 펜화

완성판 그림 : 가로 60cm x 세로 50cm

50만번의 펜선이 모여 완성된 펜화가 김영태의 작품. 판화로 찍은 10점(한정판) 중 남은 2점을 양도합니다. 판화 가격은 1점당 120만원이며 원화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개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010)3722-3076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로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택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